



<한일譜學研究所>에서는 漢文이라는 두꺼운 城郭 속에 묻혀 있는 광범위한 사료들과 유적·유물을 발굴하여 祖上들의 삶의 족적과 사상을 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 오늘의 모양으로 한글 세대들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찾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줌으로써 선조들을 통해 溫故而知新의 지혜를 얻게 하자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반만년의 民族史와 더불어 세계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각 문중의 섬세한 氏族史와 <朝鮮王朝實錄>과 같은 수많은 史書들을 갖고 있는 문화민족입니다. 또한 2천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조상들의 흔적과 숨결이 배어있지 않은 곳이 전국 방방곡곡 어디엔들 없겠습니까! 이와같이 온갖 종류의 방대한 史書의 行間과 유적·유물에 숨어있는 자신의 뿌리와 原型을 찾아 조상들의 생애를 살펴 함께 호흡하게 될 때 그것은 바로 개인의 자긍심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선조들은 한결같이 그 귀중한 足蹟들을 가꾸고 다듬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하게 하였으니 그분들의 남다른 숭조정신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숭조정신이란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조상을 기린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우리 앞에 남아있는 유적·유물 앞에서 그분들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며 되새겨 봄으로써 영광스러운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동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떻게 봉사하였는가를 살펴 봄으로써 개인은 물론한 문중의 座標를 망설임 없이 설정할 수 있는 확신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거족인 金海金氏 문중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번영의 길을 걷어간 선현들의 유적·유물을 모아 한권의 책으로 엮게 되었습니다. 미비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시간을 두고 보완하고 개편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金海金氏先賢史蹟圖鑑》과 《金海金氏先賢史料集成》이 김씨 문중의 젊은이들이 긍지를 가지고 역사의 갈피마다 빛나고 있는 선현들의 의지를 받들어 우리 민족의 발전에 앞장설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1997년 10월 10일